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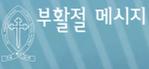
§ 2015년 표어 §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
(마 5:3-12, 창12:1-3)

† 행동 지침 †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부활의 소망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 날
먼저 죽은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이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며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유리 바다가 펼쳐져 있는 황금길을 걸으며
그 푸른 생명강가 생명나무들 사이를 걸으며
우리는 먼저 가신 성도들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엘리야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울 디모데 고넬료
어거스틴 칼빈 웨슬리 주기철 손양원 한경직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남편 아내 가슴에 묻었던 자녀들까지
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따뜻한 사랑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랑의 손길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사망을 비웃을 수 있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적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모든 서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 사 박 노 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I, II, III부 예배 시 성찬식
찬양예배 시, 할렐루야 찬양대 부활절 절기찬양 / 순결 서약식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로 지키며 주님의 삶과 피를 기념하기 위해 I, II, III부 예배시간에 성찬예식을 거행하며 부활절 감사헌금과 금식헌금을 드린다. 성찬은 깊은 회개와 감사의 기도로 받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상에 전해야 한다.

또한 찬양예배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대장: 오광환 장로)가 부활절 칸타타 『십자가 위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한편 "주를 향해 자기를 깨끗하게"(요일3:3)라는 주제로 거행되는 2015년 순결서약식이 찬양예배 시에 있다. 오리엔테이션은 오늘 오후 4시 본당에서 있다.

순결서약 신청자는 다음과 같다.
옥유진 김은빈 신지호 천예준 김재령 문예원 유선화 김유진 남사라 이수민 김주연 최세용 배규미 민희성 이선우 정서현 김소람 서윤 유병환 김휘 송채원

2/4분기 섬김위원 추가임명

1. 예배위원회

- 주일1부헌금: 임흥수
- 주일3부안내: 정미연
- 수요2부 안내: 백승갑 이현수

2. 찬양위원회

- 가브리엘찬양대: Tenor 장인철
- 할렐루야찬양대: Soprano 김희영 신석진 황미란 Bass 서정화 임광호 정창빈 정창진 이화웅2 홍영배
- 임마누엘찬양대: Soprano 김명순2 장연자 Alto 김윤미1 Tenor 곽아론 박승현 Bass 김승환1
- 베들레헴찬양대: Tenor 1 박광식 Tenor 신현일 신호용 장상국 최창규 Baritone 백승호 전봉길 임광우 Bass 김동건2 김민철2 손운문 심근섭 이현수 정안진 차영도
- 예루살렘찬양대: Bass 이태훈2
- 호산나찬양대: Alto 임이랑1
- 시온찬양대: Soprano 김혜중 노이라 박순규 Alto 이영숙 Tenor 김태훈2
- 은빛찬양대: 부대장 이재순 WOMAN 이현숙3
- 아멘관현악단: 바이올린 오상협 비올라 최혜선2 호른 권영진
- 갈렙찬양대: Soprano 전광환

3. 교육위원회

교육1국

- 영아부: 조희
- 유아부: 정기자 최현인
- 유치부: 김성은2 은다솔 진성호 최영인1
- 유년부: 공명화 김은정2 김현지6 박예주1 박윤민 박하련 윤이경 한동민 홍소희
- 초등부: 고은선 김민정7 서문호 진영재 한동주 한동현 황선영
- 어린이찬양: 부감 권소희

교육2국

- 중등부: 김병석 김희1 장윤희2

교육4국

- 신앙강좌부: 박혜선 이종욱 임선영 전봉길 조민자 조상계

4. 새가족위원회

- 등록관리부: 차장 권재현
- 새가족부: 장기숙
- 세례교육부: 임승한

5. 교구위원회

- 1교구: 7다락방 다락방장 서현정 / 부다락방장 노승원
- 2교구: 6다락방 다락방장 장미자
- 3교구: 11다락방 다락방장 소만수 / 부다락방장 양명희
12다락방 부다락방장 최경분
17다락방 부다락방장 권민정
19다락방 다락방장 나영숙 / 부다락방장 김명애
- 13교구: 13다락방 부다락방장 김영혜
19다락방 부다락방장 홍진표
35다락방 부다락방장 박미영
- 15교구: 8다락방 부다락방장 이진화2
10다락방 부다락방장 김경숙13
- 16교구: 7다락방 다락방장 인미나 부다락방장 최옥조

6. 전도위원회

- 70인전도대: 희락팀 유경희 / 인내팀 유영희 / 수요노방 전도팀 구연복 이문자 / 주일노방전도팀 손지희 / 화요기

도움 공명례 김애자

7. 선교위원회

선교사도교팀

- 동아시아
 - 김원호 선교사: 팀장 김보경 팀원 김미성 김수정 김초양 노진아 박길자 박혜선 전해연
 - 김모세-이하나 선교사: 팀원 박미영
- 말라위 김용진-황경혜 선교사: 팀원 김미향 주경자
- 방글라데시
 - 조남혜/ 수부로도바로이 선교사: 팀원 박준자2
 - 이경엽 외 9인 선교사: 팀장 이영숙4 팀원 김수원 김혜중 박화실 전수향
- 카자흐스탄
 - 바켓잔/박병연 선교사: 팀원 배경옥 이선자 최미경
- 서아시아
 - 전광혜 선교사: 팀원 구연복 박춘자 유은순 이문자 정임숙
 - 김종일-백순미 선교사: 팀원 강택근 강석조 강진환 서상근 송종근 임경락 유미숙2 이종욱

북한선교

- 광오숙 김우정3 김명옥 김태희 김형희 송경옥 유미영
- 케 초 손신일-민애라 선교사: 팀원 김애순 김필임
- 마다가스카르 이재훈-박재연 선교사: 팀원 이순형
- 인도네시아 서광중-이성일 선교사: 팀원 이미란2
- 일본 허창범-현미순 선교사: 팀원 이영임 최금봉
- 베트남 신평강-강사라 선교사: 팀원 전해정
- 필리핀 정상진-홍성임 선교사: 팀원 전해정
- 케 나 김낙형-오정녀 선교사: 팀원 이명신 이윤진
- 차드 김영섭 선교사: 팀장 김숙자1

8. 재정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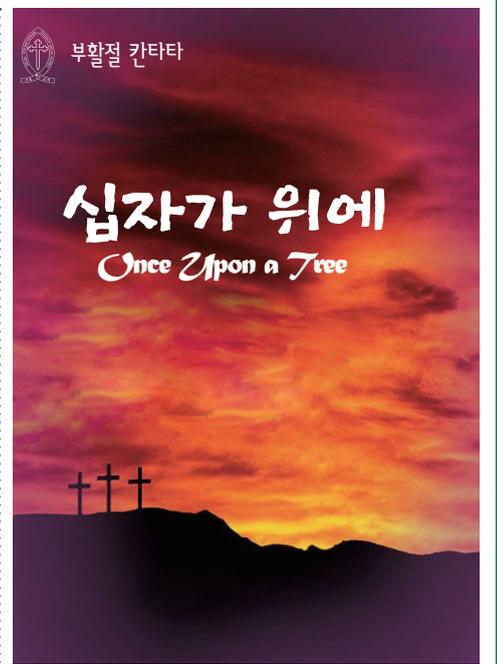
- 계수1부: 김수원

9. 당회소속기관 부서 및 행사

- 설교사역도교부: 2팀 팀원 여현진 / 3팀 구연복 박신자 이경희5 이상숙3
- 멀티미디어부: 전산운영지원팀 권재현
- 경로대학: 진중훈 황현숙
- 흥해 작전
 - 지도: 서명철 / 본부장: 이관규 / 차장: 최규초
 - 기획분과: 백승갑 / 예배분과: 김상태 / 동원분과: 최원석 / 홍보분과: 김규태 / 봉사분과: 김신영 / 차량분과: 차도훈
- 바자
 - 지도: 황 광 / 본부장: 홍성주 / 차장: 예완식 / 기획부: 주동재 / 판매관리부: 이종창 / 재정부: 김영희 / 홍보부: 서춘식 / 섭외부: 양지훈 / 특관부: 유혁근 / 교회학교: 김광태 / 시설관리부: 홍일성 / 식당관리부: 이인근 / 차량관리부: 차도훈

· 사명자대회

- 지도: 장석남 / 본부장: 오광환 / 차장: 신봉하 / 진행분과: 송영준 / 전도분과: 이민호 / 기도분과: 최원석 / 교육분과: 김장섭 / 홍보분과: 홍창훈 / 재정분과: 노창훈 / 안내분과: 황병석 / 봉사분과: 김신영 / 차량분과: 차도훈



오광환 장로
(할렐루야 찬양대 대장)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군중들의 조롱과 천대 멸시와 저주 가운데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대속의 어린양으로 높은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장사되신 사흘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위로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에게 용서와 사랑을 베풀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서울교회 할렐루야 찬양대와 아멘관현악단이 함께 정성을 들여 준비한 Pepper Choplin의 부활절 칸타타 "십자가 위에"를 부활절 찬양예배시간에 발표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며 세상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에게 용서와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지 않으시렵니까?

B.M.W.운동
동참합시다





간절한 기도와 소망으로

지난 3월 5일 김한나양(27세, 14교구 김창훈 집사의 장녀)이 캐나다 토론토에서 대형 교통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사고는 차량 두 대가 서로 충돌하면서 그 중 한 대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서 있는 한나양을 덮치며 순식간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에 우리교회는 한나 양을 위해 3월8일 주일에베 시 한 마음으로 뜨겁게 중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현지로부터 온 소식을 요약해 올립니다. 성도님들은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여 계속적으로 한나 양을 위해 중보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집부)

3월 6일

한나의 사고 소식을 듣고 역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캐나다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한나는 엉덩이와 골반수술을 6시간 정도 하였고 방광, 척장 등의 생식기 등 수술을 새벽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가슴 수술을 위해 집중관리실에서 혈압 등을 관찰하면서 타부위를 수술하고 있습니다. 심장검사결과가 매우 심각하고 대동맥이 파열되었다고 합니다.

3월 8일

MRI를 찍었는데 척추와 목의 연결부 뼈가 빠졌음이 발견되어 수술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제일 심각한 것은 혈압이 높으면 심장이 터져 가장 위험한 상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정말 가슴이 떨려 의사의 말을 듣기가 두렵습니다. 한나는 응급실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고 가족들은 매 순간 기도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3월 10일

수술 부위가 뇌와 척추연결부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고 더구나 심장대동맥 파열로 인한 심장작동이 중지될 수 있어 성공확률은 언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3월 17일

한나의 이미 시행한 목뼈, 골반, 허벅지 등 다른 수술결과가 심장수술에 방해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수술 수준의 건강조건을 올리기

위해 24시간 간호사 2명이 집중적으로 혈압과 심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장수술이 관건입니다.

3월 20일

호흡기를 떼야 턱뼈, 광대뼈 수술이 가능한데 자가호흡에 실패했습니다.

3월 24일

간절한 기도와 소망으로 한나가 10시간의 대수술을 끝냈습니다. 허벅지 피부감염, 다리 혈액순환 수술, 턱뼈, 광대뼈수술을 마쳤으며 현재 약물에 의존하고 자고 있는 중입니다. 기도의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심장대동맥수술이 4월에 있을 예정인데 그때까지 수술하면서 떨어진 체력과 정신적 에너지를 회복시키고 약물중독이나 정신적 혼미상태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3월 29일

서울교회 성도님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주셨습니다. 어제는 진통으로부터 자유하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평안한 가운데 펜으로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4월에 있을 심장대동맥수술은 한나의 체력회복정도에 따른다고 합니다.

4월 2일

턱뼈교정을 위해 인공호흡기구를 내일 뺄다고 합니다. 내일 29일만에 자가호흡을 시도하는데 꼭 성공하도록 기도부탁합니다. 그리고 오늘 25초 동안 앉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4월 3일

오늘 자가호흡을 시도하면서 집에 가고 싶다는 메모를 한 후 갑자기 호흡을 못해서 정신을 잃어버려서 다시 인공호흡기를 하였습니다. 또 허벅지에는 어른 손바닥 크기로 연탄재 같은게 있는데 dead skin 이라고 해서 할 말을 잊었습니다. 빨리 기쁜 소식을 들려야 할텐데... 그러나 아멘 하면서 열심히 달려가보겠습니다.



故 이인선 권사·故 김자영 성도를 추모하며

믿음의 황홀한 완성이여

덧난 봄날
땅이 접어지고
또 접어지고...

한 뼉 인생
오는 듯 날아가 버리고
마지막 꽃잎
가슴 깊은 골에 흘러놓고
떠나신 님들이여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절대거리
남편의 손을 놓고
아빠의 손을 놓고
육체를 떠난
영생의 휘황함이여

십자가 그 피로
결결이 씻은 거룩한 신부들
구멍 뚫린 당신 손위에
올려 드리나이다

새 하늘 새 땅
굽이굽이 빛장이 열리고
희디힌 세마포 깃 날리며
존귀와 영광으로 여장을 풀고

아빠! 저 보세요
아프지도 않아요, 슬프지도 않아요
해같이 밝은 모녀의 푸른 웃음소리가
아빠 심장의 메아리 되어 출렁인다

주고 또 주고 다 주어도 모자라
빈 몸이 된 아빠
비탈진 석양 길에
녹아 내리는 긴 울음이
하늘 길 휘돌아
생명 강가 수정 같은 물로 흐르고

그날
생명강가에 모두 둘러앉아
영광 영광 찬양 드리며
생명의 부활로 다시 태어나
예수로 시작해 예수로 마치는
믿음의 황홀한 완성이여라



신통기 권사(12교구)

의료선교부 첫 농촌 선교를 다녀와서

의료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김시찬 집사
(1교구, 의료 선교부)

지난 주일 의료선교부에서는 이 미용 봉사팀, 청년 형제 자매들, 자원 봉사자들과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직동이라는 곳으로 첫 농촌 선교를 갔습니다.

직동은 교회에서 차로 불과 40분 거리지만,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외딴 곳이었습니다. 마을 한 가운데 있는 마을 회관에 도착했을 때 직동 교회 목사님이신 이신성 목사님과 사모님이신 최규희 전도사님이 반갑게 맞아 주셨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많은 수가 예배를 드린 적이 없다는 작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 후, 1시부터 마을 회관에서 진료 준비를 하였습니다.

지역 주민을 위한 무료 진료로 제가 진료한 이비인후과를 비롯하여, 내과, 정형외과, 안과, 치과, 영상의학과, 통증클리닉의 진료를 시행하였습니다. 마을 회관 확성기에서 방송이 나오고 플랭카드 등 홍보가 잘 되어서인지 동네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많은 지역 주민이 방문하였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할

아버지께서 두 명의 부축을 받으며 진료실에 오셨다가 돌아갈 때는 거동이 편해지셔서 가시기도 하였고 평소엔 병원에서 궁금해도 잘 물어보지 못한 점들을 상세히 설명 받는 등, 진료실의 분위기는 무척 정겨웠습니다. 진료는 5시까지 예정되어 있었지만 한 시간을 훌쩍 넘겨 6시경에야 끝낼 수 있었습니다.

진료를 마친 후, 우리 모두는 직동 교회에 모여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직동이 복음화되어 모든 주민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한 목소리로 기도하였습니다. 모든 일정을 마친 뒤 직동 마을 주민들의 환송을 받으며 교회로 돌아오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번 농촌 선교 후 나는 각자의 소감을 보면서 의료선교부 모든 부원들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때 이런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눅24:32).

'의료 선교부에 가입되어 있으니 가야겠다'하는 마음으로 참석했는데 다녀와서는 예수님을 만난 것

처럼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 속에 선교의 열정이 불타며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들 또한 경험할 수 있었으니, 다음 농촌 의료 선교 꼭 같이 가자고 권유하는 것은 나만의 일일까요?

■ 특별 찬양 ■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할렐루야찬양대(대장: 오광환 장로)의 부활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고성진 집사의 지휘로 부활절 칸타타 "십자가 위에 (Pepper Choplin곡)" 아홉곡을 아멘관현악단(대장:김혜언집사, 지휘:임법창집사)과 협연하여 십자가상의 고난과 죽음을 이기시고 삼일만에 부활하시어 승리하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기쁨과 감격의 찬양을 드린다. 오르가니스트 김현정 집사, 피아니스트 김양언 집사, 팀파니스트 윤주일 집사가 연주하고 흥만유 성도가 나레이션을 담당한다.

등 정

■ 이종운 원로목사는 4.9(목) 새로운한국을 위한국민운동의 평신도지도자협의회 창립총회를 소집, 설교한다.

■ 개업 : 16교구 정기숙 권사 허벌라이프 다이어트클럽 (은마상가 B블럭 175호) 010-7799-7521
 ■ 임용 : 노은아침사(12교구) 4월1일 서울예술대학교 음악학부 교수
 ■ 득남: 6교구 박준모 성도 송혜진 성도

■ 주일식당봉사 : 엘리아 선교회(4.5) 모세 선교회(4.12)

■ 금주의 식사 제공 : 고 양인수 집사 이명희 권사 가정 (자녀결혼 감사드리며) 김광신 장로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도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2. 서울교회 다음세대들이 순결서약을 통해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여 성결의 능력으로 살게 하소서.
3. 2/4분기 추가 섬김위원들이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주님과 뭉뚱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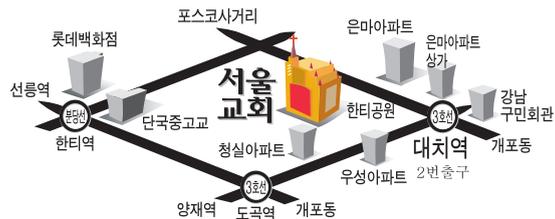
지난 주일 호산나학교 학부모님들께서 식사 제공 및 식당봉사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 당 II, III, IV 층
	II 부 예 배 (영아동시동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웨스트민스터 홀
수 요 예 배	젊은이 예 배	오후 1시 30분	본 당 II, III 층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 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